

하천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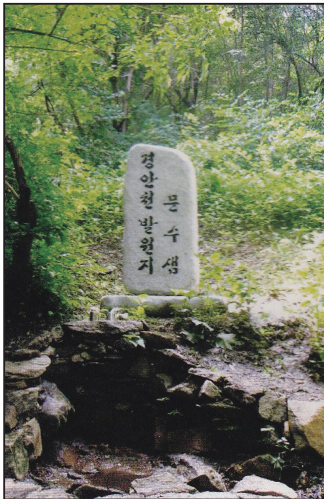
River & Culture



박 광 운 | 광주향토문화연구소장
(gjmh06886@hanmail.net)

경안천(慶安川)의 역사와 문화

경안천은 용인시에서 발원하여 광주(廣州)를 경유해서 팔당호(八堂湖)로 흘러들어 가는 50km가 넘는 커다란 국가하천이다. 용인시 시청소재지인 김량장동을 지나 포곡면과 모현면을 경유, 광주시 오포읍과 경안동을 거쳐 초월읍 지월리에서 곤지암천과 만난다. 또 퇴촌으로 흐르다 정지리에서는 남한산성에서 발원하는 변천천과 만나고, 광동리에서는 천진암에서 흘러드는 우천과 만난다. 남종면을 경유해 북한강과 남한강이 만나는 '두물머리'(현재는 팔당호)로 흘러들어 가는 광주의 생명을 담보하는 하천인 것이다. 경안천은 여



〈그림 1〉 문수산의 경안천 발원지 모습

러 개의 작은 하천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큰 지류로는 곤지암천이 있다. 곤지암천은 광주의 실촌면(현 곤지암읍) 삼합리에서 발원하는데 곤지암을 경유하면서 도척면에서 흘러들어오는 노곡천과 만나고 초월읍의 늑현리, 용

수리, 대쌍령리, 도평리를 휘돌아 지월리에서 경안천과 만난다. 경안천과 만나는 지점부터 우천(牛川), 또는 소천(召川)이라 불렀다. 경안천의 상류인 용인시 김량장동에서는 김량천이라고 부르기도 하였고, 오포읍 양벌리 앞개울은 세피내(細皮川)라고도 불렀다. 이렇듯 여러 개의 하천이 모여 경안천이 형성된 것이다.

예로부터 인류의 문화는 강과 하천을 중심으로 발달해왔다. 경안천 주변은 선사시대부터 우리 민족의 생활 터전이었다. 경안천 주변에서는 수많은 선사시대 유물들이 발굴되기도 했다. 그만큼 경안천은 생명과 역사를 안고 흐른다. 광주 사람들의 생명의 원천이며, 삶의 터전인 셈이다. 또한, 우리의 전통문화를 꽃피워온 문화의 현장이기도 하다.

1. 경안(慶安)이라는 지명에 대하여

경안천의 하천명은 광주부(廣州府)의 경안면(慶安面)에서 비롯된다. 동국여지승람에도 경안천(慶安川)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경안이라는 지명은 고려시대부터 전해온다. 그보다 훨씬 전에는 회안(淮安)이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삼한시대 이전에 고조선의 마지막 왕인 준왕(準王)이 위만조선에

쫓겨 남쪽으로 내려오다가 경안(慶安)에 터전을 만들어 회안국(淮安國)이라는 소국(小國)을 세웠는데, 경안천을 중심으로 세웠다는 기록이 있다. 조선시대에 와서도 경안, 또는 회안으로 표기한 글들이 많이 발견된다. 고려 말 북쪽의 오랑캐인 홍건적(紅巾賊)의 난이 일어났을 때에 공민왕은 개경(開京)을 버리고 안동으로 피신하면서 경안역에서 한 달 동안 머물면서 반격할 계책을 세우기도 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그 당시에도 경안역이 있었다 한다. 그만큼 경안천은 중요한 지역이 생성되기 위한 기반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2. 경안천이 안고 있는 역사

2.1 선사시대의 경안천

경안천은 천 년 전에도 흘렀고, 2,000년 전에도 흘렀다. 1986년 곤지암천변인 도척면 궁평리(궁뜰)에서 발굴된 선사시대 유물들을 보면 돌로 만든 찌르개와 굽개가 주류를 이룬다. 이 유물들은 생활도구로 이 일대가 주거지였음을 알려 주는 대목이다. 이 외에도 고인돌과 여러 생활도구들이 발굴되어 중부고속도로 음성 휴게소에 전시되고 있는가 하면 곤지암천변인 초월면 산이리에서도 선사시대의 고인돌이 발굴되어 보존되고 있다. 그 밖에도 장지동의 경안천 지류 인근에서도 많은 선사유적들이 발굴되었다. 이러한 사실로 10,000년 전에도 경안천이 흘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주 옛날부터 우리들의 조상이 경안천을 삶의 터전으로 삼아왔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2.2 경안천변의 역사적인 사건들

한강의 지류이기도 한 경안천은 역사적으로도 많은 기록이 남아 있다. 그야말로 산천은 유구한데 인결은 간 곳이 없다. 역사적인 사건들을 자세히 기록할 지면이 아니므로 간략하게 적어보기로 한다.

홍건적(紅巾賊)과 공민왕

고려 말 몽고족이 지배하던 원(元)나라가 쇠퇴하고 명나라

가 중원을 장악하기 시작하면서 북쪽의 만주 땅은 무주공산(無主空山)이 되어 도적들이 들끓었다. 그들은 압록강을 넘어 고려 땅에 들어와 온갖 행패를 부리며 노략질을 하기 시작하였고, 여세를 몰아 고려의 수도인 개성을 넘보기에 이르렀다. 고려 조정에서는 그들을 당장 막아낼 병력이 부족하여 왕실을 남쪽으로 피신시키기에 이르렀는데, 공민왕은 신료들과 비빈들을 데리고 안동을 목적지로 하고 출발하였다. 며칠 후에 경안역(지금의 광주시 역동)에 도착하여 한숨 돌리고 거의 한 달간을 묵어가면서 고려군의 반격 계책을 찾아보았으나 실통한 계책이 없어 다시 출발하여 경안천의 지류인 곤지암천의 발원지 삼합리(곤지암읍)에서 1개월을 버티고 있었다. 고려군은 개경(開京)을 방어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 했으나 밀리고 말았다. 공민왕은 다시금 안동을 향하여 출발할 수밖에 없었고 안동까지 피신하게 되었다. 군사를 재정비한 고려군은 반격을 가하여 6개월 만에 다시 개경을 회복하게 되었다.

이괄(李适)의 난과 경안천

조선시대 인조반정(仁祖反正)이 있은 후 반정공신(反正功臣)들의 논공행상(論功行賞)에 불만을 품은 평안도절도사 이괄(李适)이 난을 일으켜 단숨에 한양을 점거하고 임시로 왕을 옹립하여 기세등등하게 날뛰던 것이 인조 2년(1624)에 있었던 이괄의 난이다. 인조는 공주로 피신하였고, 관군과 반란군 간의 싸움은 치열하였다. 그러나 결국 이괄의 군대가 관군에 밀려 한양을 버리고 남쪽으로 도망가게 되었는데, 광주목사(廣州牧使) 임회(林檜)를 남한산성으로 올라가 죽이려고 하였으나, 경안역(慶安驛)으로 출장 중이라는 말을 듣고 부하들과 경안역을 향하여 달려갔다. 경안역에서 만난 임회는 이괄을 꾸짖으며 호령하였다. 이괄은 무기도 갖지 않은 임회의 목을 베고 이천 방면으로 도망하였다. 곤지암의 묵방리는 곤지암천의 지류인 수양천의 하류에 있는 마을인데, 이곳에서 하루를 머무르게 되었다. 이괄의 부하들이 이괄을 따르다가는 자기들도 온전히 살아남을 길이 없음을 깨닫고 밤중에 이괄을 죽이고 그의 머리를 인조의 행재소(行在所)가

있는 공주(公州)로 가지고 가서 항복을 하게 되어 이괄의 난은 끝이 나고 말았다.

병자호란(丙子胡亂)과 경안천

1636년(인조14) 겨울, 만주의 여진족(女眞族)이 세운 청나라가 십만 대군을 몰아 얼어붙은 압록강을 건너 조선을 침범하였다. 이것이 병자호란이다. 국왕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피신하였고, 성 안에는 일만여 병력과 조정 신료들이 청나라 군사들에게 완전히 포위되어 굶주림과 추위에 지쳐 있으면서 청군과 항전하고 있었다. 조정에서는 삼남지방(三南地方)에 근왕군(勤王軍)을 편성하여 포위되어 있는 국왕을 구하라고 격문을 보내, 경상도 좌우 병마절도사 허완(許完, 閔栉), 충청도 병마절도사 이의배(李義培)가 남한산성을 향하여 진군하다가 광주의 쌍령(雙嶺)에서 청나라 군사와 전투가 벌어졌다. 쌍령은 경안역에서 경안천을 건너 불과 4km 이내에 있는 고개이며, 현재의 초월읍 대쌍령리와 도평리(초월읍) 뒷산이다.

1636년 12월 30일 삼남의 병사(兵使)는 군사들을 이끌고 광주의 쌍령에 도착하였다. 남한산성으로 가지면 여기에서 잠시 머물러 적정을 살펴야하고, 기마병으로 무장한 청나라 군사와 싸우자면 우리 근왕군의 병력이 너무나도 초라한데다 훈련이 제대로 안 된 보병이었기 때문에 각도 병사(兵使)들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다. 그해 12월 30일 폭설이 내리운 천지가 눈으로 덮였고 북풍한설(北風寒雪)에 병사(兵士)들은 견디기조차 힘들었다. 이러한 악조건 가운데서도 사기만은 충천하여 도평리와 대쌍령리에 나누어 진을 치고 있던 근왕군은 결연한 자세로 다음 해인 1637년 1월 3일 남한산성을 향하여 새벽에 출발하려 하였다. 그러나 오랑캐 병사들은 조선 근왕군의 실태를 파악하고 1월 3일 어둠이 가시기 전에 남한산성 아래 불당리 일대에 진을 치고 있던 3,000여 기병(騎兵)을 동원하여 쌍령에 포진하고 있던 조선 근왕군을 기습 공격하여 왔다.

경안교를 건너 쌍령 고개 밑에 진을 치고 있던 의병장 김충선(金忠善)이 이끄는 150명의 조총부대는 오랑캐 기병들이

쌍령을 향하여 달리는 길목에서 무수히 적을 사살하여 도랑에 피가 흐르고 적의 시체가 쌓이도록 큰 전과를 이루었으나, 중과부적이어서 후퇴하였고, 적의 일부는 경안천을 북쪽으로 돌아 곤지암천과 합수하는 지월리에서 도평리를 향하여 습격하였다. 행군을 준비하고 있던 좌병사 허완의 진영은 혼란에 빠지게 되었고, 조총으로 무장한 허완의 예하 선봉군이 일제히 조총을 쏘며 대항하자 오랑캐 기병들이 몰려섰다. 그러나 화약을 2량씩밖에 지급하지 않아서 화약을 더 달라고 소리치는 말을 듣고 오랑캐 기병들이 근왕군 진영으로 넘어 들어와 백병전(白兵戰)이 벌어지게 되었다. 근왕군은 백병전에 대항할 능력을 갖추지 못하여 좌병사 허완의 진은 삼시간에 무너지고 말았던 것이다. 근왕군의 선봉장인 안동영장 선세강(宣世綱)이 이끄는 선봉부대가 무너지자 견잡을 수 없이 좌병사의 진이 무너지고 급기야 좌병사 허완과 안동영장이 전사하자 도평리의 좌진이 무너지고 말았다. 오랑캐 군은 여세를 몰아 우병사(右兵使) 민영과 충청병사 이의배의 진영을 공격하였다. 대쌍령리에 진을 치고 있던 근왕군 진영은 정예 병사들이 많아서 조총으로 방어하게 되어 한나절을 싸웠으나 승부가 나지 않아 오랑캐 군은 일진일퇴하면서 공격했지만, 민영의 진을 함락시키지는 못하였다. 게다가 안타깝게도 민영의 진에 쌓아두었던 화약 더미에서 폭발사고가 일어나 많은 군사가 폭사하고 화약이 불타버리고 말았다. 이에 오랑캐들이 민영의 진으로 넘어 들어와 백병전이 벌어져, 좌진(左陣)과 똑같은 양상으로 진이 무너지고 말았다. 그로 인해 삼남의 근왕군은 3,000여 명의 젊은 생명과 우병사 민영, 충청병사 이의배와 상주영장 윤여임 등 지휘관들이 모두 희생되고 생존 병사들은 충주방면으로 철수하면서 쌍령에서의 전투는 끝났다. 초월읍 대쌍령리에는 정충묘(精忠廟)라는 사당이 있어 병자호란 때 순절한 경상좌도 병마절도사 허완, 우도 병마절도사 민영, 충청도병마절도사 이의배 장군과 안동영장 선세강의 위패를 봉안하고 전망일인 음력 정월 초 3일에 광주시장이 초헌관이 되어 공제(公祭)로 제향(祭享)하고 있다.



(그림 2) 정충묘 제향하는 모습(음력 정월 초 3일)

2.3 조선백자와 경안천

광주는 조선시대 사옹원(司饗院)의 분원(分院)이 소재하고 있던 고장이다. 따라서 왕실에서 사용하던 모든 자기는 광주에서만 생산되었다. 청화백자, 분청사기 등 조선시대 최고 품질의 도자기가 생산되던 곳이었다. 도자기를 만들자면 가마가 있어야 하고, 땀값이 풍부하여야 한다. 또한 운반이 용이하여야 하는데, 도자기는 파손될 우려가 커서 수로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좋은 운반 수단이었다. 따라서 경안천이 가까운 지점에 가마를 만들어 도자기를 생산하였던 것이다. 퇴촌면 관음리 일대는 경안천의 지류인 우천을 끼고 있고 땀값이 풍부하여 가마가 유독 많았다. 최근 30여 개의 가마터가 발굴되기도 했다. 초월읍의 무감리에서도 20여 개의 가마터가 나왔고, 곤지암천에서 가까운 초월읍 학동리에서도 10여 개의 가마터가 발견되었다. 곤지암읍의 대석동과 신대리에서도 많은 가마터가 발굴되었다. 중부면의 상번천과 하번천리에서도 많은 가마터가 발굴되었다. 양벌리 부근에서도 수많은 가마터가 발견되었는데, 이는 모두가 조선관요(朝鮮官窯)였던 것이다.

경안천은 조선백자 중에서도 가장 우수한 품질의 도자기를 생산하여 운반하던 곳으로 자기문화(磁器文化)의 꽃을 피우던 고장의 맥을 이은 곳이며 지금까지도 그 전통은 이어지고 있다. 현재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받은 도공(陶工)들이 조상들이 빚어내던 백자에 못지않은 우수한 작품을 만들기에 여념이 없다.

2.4 경안천을 중심으로 태어난 위인들

광주에서 출생한 인물들을 열거하자면 지면이 모자라 일일이 기록할 수는 없다. 생각나는 대로 적어보면, 광주안씨(廣州安氏)의 시조인 안방걸(安邦傑)은 광주에서 태어나 고려 개국에 공헌한 인물로 태조 왕건으로부터 광주를 식읍으로 받아 그 후손이 번성하였다. 그의 후손들 중에는 수많은 위인들이 있었고, 중대동에는 광주안씨가 600년 이상 세거하고 있다. 조선 후기의 실학자 순암(順菴) 안정복(安鼎福)도 광주안씨이며 중대동에서 학문을 닦고 후진을 양성하였던 이택재(麗澤齋)가 지금도 잘 보존되고 있다. 고려말 이성계가 조선을 개국 함에 불사이군의 정신으로 끝까지 고려의 신하로서 절개를 지킨 석탄(石灘) 이양중(李養中)과 그 후손으로 중종반정(中宗反正) 공신(功臣)인 한산군(漢山君) 이손(李蓀)이 광주 출신이다.

근대 인물로는 해공(海公) 신익희(申翼熙)를 들 수 있다. 그는 경안천변인 초월읍 서하리에서 출생하였다.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아버지로 추앙받는 해공선생의 생가가 서하리에 경기도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보존되고 있다. 한글학자 김윤경(金允經)은 오포읍 고산리에서 출생하였는데, 경안천변에 있는 마을이다.

2.5 경안천변에 영면(永眠)하고 있는 위인들

광주는 예로부터 산세가 수려하여 좋은 산소자리가 많다. 따라서 광주 땅에 영면(永眠)하고 있는 현조(賢祖)들의 무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조선초기의 문신으로 고불 맹사성(孟思誠)의 묘가 경안천 지류인 직리천 상류 직동에 있고, 훈민정음 창제에 공이 많은 세종대왕 때 집현전 8학사 중 한 분이며 영의정을 역임한 태허정(太虛亭) 최항(崔恒)의 묘가 퇴촌면 도마리에 있다. 세조 때 영의정을 역임한 충렬공(忠烈公) 구치관(具致寬)의 묘는 곤지암읍 열미리에 있다. 조선중기 여류시인으로 유명한 허난설헌(許蘭雪軒)의 묘는 초월읍 지월리 경안천 인근에 있고, 병자호란 때 심양에서 소현세자를 배종하여 세자시강원 필선(弼善)으로 재임 중 청나라에 의해 억울하게 순절한 윤계(雲溪) 정뇌경(鄭雷卿)의 묘소도 경

안천 지류인 중대천 인근 장지동에 있다. 고려 유신으로 불사이군(不事二君)을 강조하며 조선개국 후 그의 친구인 태종의 부름을 받고도 끝까지 출사하지 않아 추앙받고 있는 석탄(石灘) 이양중(李養中)의 묘는 초월면 신월리 곤지암천 부근에 있다. 임진왜란 때 충주 탄금대에서 배수진을 치고 왜적과 싸우다가 순국한 신립(申瑰) 장군의 묘는 곤지암천 부근인 곤지암읍 곤지암리 대석동에 자리하고 있다. 그 외에도 많은 위인들의 묘소가 산재하고 있으나 일일이 열거하지 못한다.



〈그림 3〉 경안천 인근 허난설현의 묘



〈그림 4〉 곤지암천 부근 신립장군의 묘

3. 경안천과 문화유산

남한산성은 백제 시조 온조왕(溫祚王)의 도읍지였다. 고려 시대에도 광주목(廣州牧)의 읍치(邑治)로 조선시대 대한제국 때까지 이어오다가 일제 강점기에 현 경안동으로 군청소재지가 옮겨오면서 퇴락하였다가 근래에 와서 대대적인 복원사업을 펼쳐 행궁(行宮)을 복원하고, 성곽을 보수하며, 문화재들을 중수(重修)하여 광주의 대표적인 문화관광지로 발

돋움하고 있다. 남한산성은 경안천의 지류인 변천천의 발원지이기도 하다. 그곳에는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호 수어장대, 제2호 송렬전, 제3호 청량당, 제4호 현절사를 비롯하여 10여 개의 문화재가 보존되어 있다.

송렬전은 백제시조 온조왕과 남한산성을 수축하고 병자호란 당시 북문 대장이었던 완풍군(完豐君) 이서(李曙)의 위패를 봉안하고 제향을 받드는 사당이며, 현절사는 병자호란 당시 척화신(斥和臣)을 대표하여 청나라 심양에 압송되어 참혹하게 순절한 삼학사인 홍익한(洪翼漢), 윤집(尹集), 오달제(吳達濟)와 척화파의 거두였던 청음(淸陰) 김상헌(金尙憲), 동계(桐溪) 정온(鄭溫)의 위패를 봉안하고 제향을 받드는 사당이다. 수어장대(守禦將臺)는 일장산(日長山) 정상에 있는 장대(將臺)로서 남한산성 방어전 총지휘소가 있던 곳이다.

또한, 남한산성에서는 해마다 남한산성 문화제가 열린다. 남한산성은 성이 세워진 뒤 한 번도 외적(外敵)에게 함락된 적이 없는 난공불락(難攻不落)의 요새지여서 전통적인 민속놀이와 각종 행사가 10월 초에 개최되어 전 시민의 축제 한마당으로 자리 잡고 있다.

경안천 지류인 곤지암천 부근에는 조선관요박물관(朝鮮官窯博物館)이 있어서 조선시대 광주 지역 관요에서 생산된 보물급의 조선백자를 전시하고 있다. 수도권외의 관광객들이 주말이면 가족 동반으로 많이 찾아오고 있다. 광주의 대표적인 풍물로 광지원농악단(光池院農樂團)이 있다. 그 기량이 우수하여 전국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바 있고, 광주시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기도 하였다.

4. 경안천의 어제와 오늘

경안천은 팔당댐이 축조되기 전만 해도 주변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이용하는 자연 수영장이면서 산책로이며, 천렵을 즐기던 하천이었다. 물고기를 잡아먹기도 하면서 시민들이 쉽터로 활용하였다. 장마 때 큰물이 지나가면 물고기가 많이 올라와서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하천으로 나가 물고기 잡기에 여념이 없었고, 하천은 정화되어 주변이 깨끗했었다. 그러나

급속도로 발전해가는 산업화로 상류에 대규모 가축 사육장이 생기면서 정화되지 않은 가축분뇨를 마구 방류함으로써 하천이 극도로 오염되어 발조차 담그지 못할 정도로 심각하게 오염되었었다. 수많은 공장이 경안천변에 들어서면서 경안천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오염되었다가 팔당댐이 수도권 상수원의 취수원이 되면서 수질개선에 힘써 정화되기 시작하여 지금은 2급수로 수질이 향상되어 철새들이 날아드는 우수 하천이 되었다. 청동오리를 비롯하여 고니가 도래하는 철새 도래지가 된 것이다. 하류인 퇴촌면 정지리에는 경안천 습지공원이 조성되어 있어서 도시민들의 탐방이 줄을 잇고 있으며 학생들의 현장실습지로도 각광받고 있다. 지금은 하천을 따라 자전거 도로가 개설되어 시민들이 즐기고 있고, 경안교 인근에는 청석공원(靑石公園)이 들어서서 시민들의 놀이공원으로 활용하고 있어 활기찬 시민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아름다운 하천으로 변모하였다.



〈그림 5〉 습지공원으로 조성된 경안천 모습



〈그림 6〉 자연 친화적인 아름다운 경안천 모습

지금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넘는 국민들의 식수를 공급하고 있는 팔당호는 남한강과 북한강 그리고 경안천이 만나 거대한 인공호수를 이룬다. 당초에 팔당댐이 건설된 것은 상수원의 취수원으로 조성된 것이 아니고, 한강의 홍수조절용

댐으로 건설되었다. 그러나 수도권의 인구가 팽창하면서 상수원 취수가 팔당댐으로 옮겨오게 되어 지금은 다목적 댐이 되었다. 따라서 경안천은 팔당댐으로 직접 흘러들어 가게 되는 관계로 철저한 수질관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곳이 되었다. 경안천은 흘러온 역사만큼 앞으로 더 오래도록 흘러갈 것이다. 따라서 광주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시민들은 경안천의 은택을 받고 살아가야만 한다. 개발이라는 미명 아래 콘크리트로 변하는 것을 지양하고 지금의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자연 친화적인 하천으로 보존하여야 할 것이다. 당국과 시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경안천 보전에 힘을 기울여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바이다. 🌊



〈그림 7〉 한겨울의 경안천 모습



〈그림 8〉 해빙기의 경안천 모습



〈그림 9〉 홍수기의 경안천 모습